

## 제1절 개요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환경과 여건에 적합한 종교와 의례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종교는 불교와 유교, 1860년에 탄생한 동학 그리고 개항과 더불어 유입된 천주교나 개신교와 같은 서구 사회의 종교가 있다. 개항 이후에 새로운 종교단체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치·사회적 조건들인 정교분리 원칙, 종교 자유 등의 배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또 한국의 ‘신종교’(新宗教)는 19세기 중엽 이후에 발생한 동학 즉 천도교를 비롯한 대종교·증산교·원불교 등 대표적이다. 이는 한민족의 자체적인 종교운동으로서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사회 변혁기에 한국에서 발생한 새로운 ‘민족종교’이다. 새롭게 일어난 종교운동이기에 ‘신종교’(新宗教)로 불리며, 지배계급이 아닌 대다수 민초(民草)들을 위한 종교이기에 ‘민족종교’(民族宗教)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밀려들어온 일본종교들, 1950년 한국전쟁 중에 유입된 이슬람교 등을 비롯하여 최근에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는 수많은 기독교계 및 불교계의 소종파들의 종교가 있다. 이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공존해온 집안 신앙과 마을 신앙, 그리고 무속신앙 등 민속신앙이 공존하고 있다.

2015년 통계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교는 공식적으로 총 927개 교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 인구 49,052,389명(100%) 중 종교 인구는 21,553,674명(43.9%)이고 무종교인구는 27,498,715명(56.1%)이다. 각 종단별로 종교 인구를 살펴보면 개신교 9,675,761명(19.73%), 불교 7,619,322명(15.53%), 천주교 3,890,311명(7.93%), 원불교 84,141명(0.17%), 유교 75,703명(0.15%), 천도교 65,964명(0.13%), 대순진리회 41,176명(0.08%), 대종교 3,101명(0.01%), 기타 98,185명(0.20%)이다.

경상북도의 경우는 인구 2,590,042명 중 무종교 1,435,737명(55.43%), 불교 654,091명(25.25%), 개신교 345,238명(13.33%), 천주교 135,299명(5.22%), 유교 5,534명(0.21%), 천도교 3,051명(0.12%), 대순진리교 2,836명(0.11%), 원불교 1,644명(0.06%), 대종교 278명(0.01%), 기타 6,334명(0.24%)이다. 특히 경상북도의 경우 전국의 종교인 비율과 비교하였을 때 불교 인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원불교보다도 유교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울진군의 경우 군 인구 47,503명 중 무종교 28,916명(60.87%), 불교 10,254명(21.59%), 개신교 5,806명(12.22%), 천주교 1,836명(3.86%), 유교 353명(0.74%), 대순진리회 39명(0.08%), 천도교 20명(0.04%), 대종교 1명(0.00%), 기타 199명(0.42%)이다. 이는 경상북도의 종교인의 종단별 인구 분포 비율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